



차의 시원(始原)과 발달

박 동 춘

(한학자, 전통차 전수자)

차는 알가(闍伽)라는 범어(梵語)에서 유래되었다. 우리가 흔히 차라고 하는 것은 녹차계통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원래부터 우리나라 토양에서 자생되어 음용하게 되었던 것은 아니며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발전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생되어 차로 음용된 유형은 백산차 계통이다. 이 차는 장백산(白頭山) 정상에서 자생하는 철쭉 종류인데 고대에 토민들 사이에서 음용되었던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음용하고 있는 인삼차, 구기자차 등이 백산차의 유형이다.

차의 재료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졌을뿐 백산차의 유형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럼 녹차계통의 차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일까? 대략 세가지 설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인도의 허황후가 아유타국에서 불상과 함께 차를 가지고 왔다는 설이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말에 이 차(茶)씨를 김해 백월산에 심어 실제로 김해에서 최근까지 죽로차가 생산되었다는 것이다. 또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수로왕의 11대 손인 거등이 제사에 떡과 술, 나물과 차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둘째 설은 신라 흥덕왕 3년에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대림이 차씨를 가지고 와서 쌍계사 부근에 심었다는 설인데 지금도 지리산 근처에 야생차가 많은 것은 아마도 대림이 가지고 온 차씨를 이 부근에 심어서일까?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신라 흥덕왕 때에 이미 차가 있었다고 하니 우리나라에 차가 유입된 시기는 훨씬 오래된 것이 아닐까 추

측된다.

세번째는 차씨가 바닷물을 타고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우리나라 토양에 정착되었다는 설이다. 이 설도 나름대로 그 근거가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다.

식물이 바람과 물길을 따라 이동될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해변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야생차가 이런 유형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차의 유입은 어느 시기, 어떤 경로로 유입되어 발전되었는지 아직도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통일신라말 남선종(南禪宗)이 당나라로부터 신라에 들어 온 것이 차의 발달에 획기적인 동기를 준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새로운 문화는 대부분 상업적 통로와 종교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 당나라로부터 남선종이 들어오면서 차와 청자도 함께 들어왔다. 이 남선종과 함께 들어온 차는 아마도 종교적 의식 속에서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을 것이다.

구산선문이 있었던 지역에 청자의 요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차도 이 선종과 함께 발전되어 나갔으리라 추측된다. 차는 불교와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차의 본질이 맑고 각성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행 중에 가장 곤란한 문제인 수마를 멀리하는 방법으로 차의 음용이 유행되었다. 차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소화를 돕는다든가 머리를 맑게 한다든가 하는 점이 다른 마실거리보다 훌륭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문화의 발전은 종교적인 색채와 그 시대의 귀족

계층의 선호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것처럼 차도 또한 이런 발전단계를 거쳐 왔을 것이다.

그럼 이 시기에 들어온 차의 종류는 어떤 것일까? 단차계통(團茶系統)이 가장 유력한 차의 유형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통일 신라말 중국은 당나라인데 이때 당나라의 지배계층은 북방민족이지만 남방의 찬란한 문화를 받아들여 더욱 아름다운 문화를 이룩하였다. 이 시기에 음용된 차의 종류는 대개 말차이다.

이 차는 단차(團茶)로 유통상 편리함과 보관성 때문에 멀리 남방에서 만들어진 차를 북방인 낙양으로 운반할 수 있게 되었다. 차 그릇의 형태도 지금 남아 있는 유물에서 보면 거의 말차를 음용하기 편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차 문화는 정신적인 면에까지 큰 영향을 주었다. 신라시대에 화랑들이 심신을 수련할 때 수련의 방법으로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독서자들 사이에서도 차가 선호되었던 것은 차가 가지는 유용성이 그들의 취향과 기호에 일치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신라나 고려 때에 쓰여진 선인들의 문학성이 뛰어난 글에서도 어김없이 차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글이 많이 나타난다. 차는 그들의 생활에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고려의 팔관회나 공덕제 같은 국가적인 의식에서도 차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고려 성종은 특히 차를 아끼는 인물인데 공덕제가 있게 되면 몸소 차를 갈아 이것을 본 최승로가 그 폐단을 상소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고려 때에는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사이에 까지도 단차가 유행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활발했던 음다(飲茶) 풍습은 지나친 사치로 이어져서 일반 백성들에게 많은 노력과 지나친 공출을 요구하게 되어 많은 백성들이 차를 만들어 세금으로 바치는데 시달리게 되었다.

이런 폐단은 중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서 사람의 노동이 많이 요구되는 말차의 형태인

단차에서 탕차(湯茶)로 차의 형태가 변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바로 과도한 노동력이 소요되는 단차를 만드는 방법이 점차 탕차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차는 요즘 우리가 흔히 대하는 차의 형태이다.

조선시대에 차는 고려말에 유행하던 차풍(茶風)이 그대로 이어져 왔으나 국가의 통치이념이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전환되면서 불교의 지나친 의식이 간소화되거나 폐지되었다. 도성 가까이에 있던 사원이 없어지고 승려들은 점차 산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도성 출입이 법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조정안에서는 차시(茶時)라 하여 매일 한차례씩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다. 이때의 차 종류는 탕차가 주로 쓰이게 되었다.

또 다세(茶稅)가 중기까지도 남아 있어서 점필제가 함양 군수로 부임해 보니 고을에 다세가 아직도 남아 있어 차가 없는 지역에서는 쌀이나 면포를 차와 바꿔 다세를 내어 민폐가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음차 풍습은 점차 쇠퇴하여 후대에는 약용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일부 사대부나 유학자, 승려들 사이에서 명맥을 이어오던 차는 일제의 강점기를 맞아 우리의 고유한 차 문화는 거의 멸절되어 버렸다. 이것은 일제가 조선 사람들을 더욱 우민화해 가는 과정에서 (차가 정신을 맑고 밝게 한다하여 일찍이 다산선생도 “차를 마시는 민족은 흥하고 술을 마시는 민족은 망한다”라고까지 말하여 차가 사람을 일깨우는 좋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셨다.) 대중들과 점점 멀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서 이런 훌륭한 차 문화를 가지고도 그런 훌륭한 문화가 있었던 일조차도 알지 못하게 될 뻔했으나 대홍사의 초의라는 스님이 저술한 동다송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다시 우리의 차 문화가 어색한대로 일반사람들의 관심속에 살아나게 되었다.